

주간 테러동향

'21.4.2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 FBI, SNS를 극단주의 메시지 전파 핵심으로 지목
 - 4.15 美 FBI 「레이」 국장은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“SNS가 국내 위협의 ‘핵심 증폭기’로써 극단주의자들이 선동 메시지를 전파하는 중심적 매개체이며, 특히 극우집단 ‘큐어넌’*의 활동은 폭력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”고 강조
- * 큐어넌(QAnon) : 미국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극우성향의 음모론 신봉 집단
- 美, ‘페덱스 창고 총격사건’ 용의자 백인우월주의자 가능성 제기
 - 4.20 美 경찰은 지난 15일 인니애나폴리스市에서 발생한 총격사건(8명 사망)의 용의자가 1년 전 총기구매 후 자살소동을 벌였을 당시 거주지 조사 과정에서 백인우월주의 선동 웹사이트 접속 기록을 확인했던 적이 있다며 관련 사상에 심취한 극단주의자일 가능성 제기

유럽

- 獨, 아프가니스탄 파병 자국군 8월 중순까지 철수 예정
 - 4.16 「카렌바우어」 독일 국방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중인 자국군 1,100여명을 오는 8월 중순까지 철수시킬 계획이나 철군 후에도 민간분야 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
- * 4.14 美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2,500여명을 9.11까지 완전 철군시키겠다고 발표
- 露, 시리아 동부 ISIS 근거지 조직원 200명 사살
 - 4.20 러시아 분쟁조정센터는 자국군이 시리아 동부 팔미라 인근 ISIS 근거지 2곳을 공습하여 테러범 200명을 사살하고 차량 24대와 탄약 500kg을 파괴했다고 발표
- * 러시아의 공습장소는 ISIS가 시리아 전역을 공격하기 위해 집결한 지역

아 · 태평양

○ 우리 경찰, 이슬람 금식월 ‘라마단’ 기간 테러경계 강화

- 4.15 경찰청은 올해 ‘라마단’ 기간(4.13~5.12) 中 테러나 종교·종파간 갈등 가능성에 대비, 이슬람 종교시설 173개소(성원 20·예배소 153)와 무슬림 밀집장소에 대한 외사보안 활동과 SNS·인터넷 등 외국인 커뮤니티 대상 모니터링과 대테러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

* 국제 테러단체들은 무슬림들에게 ‘라마단 기간에 순교시 천국에 간다’며 지하드(聖戰)를 촉구하고 있어 테러 발생률이 높은 편

○ 濠, 아프간 주둔 자국軍 9월限 전원 철수 예정

- 4.14 현지 언론은 「모리슨」 총리가 西호주 퍼스市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국軍이 지난 20년간 세계평화를 위해 테러단체들과 꾸준히 싸워 왔음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계획에 맞춰 호주軍도 9월까지 전원 철수할 예정임을 발표했다고 보도

* 아프가니스탄 파병 호주軍은 최대 1,500명이었으며 현재 주둔인원은 약 80여명

○ 中, 미군 철수 後 아프가니스탄에 평화유지軍 파견 고려

- 4.16 외신은 중국이 오는 9月 예정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현지의 혼란 가중이 신장 자치구의 위협으로 판단되면 자국민·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인도적인 지원과 함께 현지에 평화유지軍 파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도

중 동

○ ISIS, 이라크 유전지대 공격 배후 자처

- 4.19 로이터통신은 ISIS가 자체 선전매체 나세르 뉴스를 통해 이라크 북서부 키르쿠크州 유전지대에 대한 폭발 공격(4.17)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

* 이라크는 유전 2곳이 공격받았으나 재산·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발표

스리랑카 부활절 연쇄 자살폭탄 테러

- '19.4.21 08:45경부터 스리랑카 콜롬보 인근의 성당·교회와 호텔 등 총 8개소*에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257명 사망(외국인 30여명 포함), 500여명 부상
 - * △08:45경 콜롬보 聖안토니오 성당, 聖세바스티아누스 교회, 상그릴라·킹스버리 호텔
△09:05경 바티칼로아 교회 △13:45경 콜롬보 국립동물원 인근 게스트하우스 등
- 스리랑카 정부는 同 테러가 부활절을 맞아 인파가 많은 성당·교회와 외국인이 다수 체류중인 호텔을 노린 이슬람 조직 NTJ*의 조직적인 테러라고 밝히며
 - * NTJ(National Thowheeth Jama'ath, 내셔널 타우히트 자마트) : 스리랑카 극단주의 단체
 - * 사건 직후 NTJ는 선전물을 통해 同 테러의 배후를 자처
- 사건 발생 약 2주후인 5.6 테러 용의자와 관련자 전원을 검거 또는 사살했다고 발표
- 한편, 스리랑카 관계당국은 사건 열흘 전에 이미 NTJ에 의한 주요 교회·성당 등에 대한 테러계획 첩보를 수 차례 입수했음에도 대비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이 계속되자 결국 대응 실패를 인정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NTJ (National Thowheeth Jama'ath, 내셔널 타우히트 자마트) >

- (결성) '16년 스리랑카에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, '19.4.21 연쇄 자폭테러 이후 스리랑카 경찰의 대대적인 검거작전과 재산몰수 조치 등으로 와해
(해체전 전성기 조직원 100~150명, 추종자 약 2,000~3,000명)
- (활동지역) 스리랑카 전역
- (활동수법) 자살폭탄 테러, 他 종교반대 폭동 등
- (주요테러) △'18.11 바부나티뷰 경찰 총격 사건 △'18년 스리랑카 불상(佛像) 파괴
△'19.4.21 스리랑카 콜롬비아 성당·교회·호텔 연쇄 자살 폭탄 테러